

## 재정경제금융관 간담회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2.1)

- 세계각지에서 재정경제금융관<sup>(재경관)</sup> 여러분께서 국익의 최전선을 지키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.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
- 돌이켜보면 작년은 유례없는 해외발 충격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.
  - 글로벌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수십년만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고,
  -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가파른 통화긴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회복 흐름도 둔화되었습니다.
- 작년 한 해 재경관 여러분들이 제공해 준 해외 생생한 현지 정보와 심층 보고서들은 우리 경제의 당면 위기 극복과 제도약의 발판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  - 하지만, 덕담만 주고받으며 끝내기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, 재경관 여러분의 책무가 과거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해져 있습니다.
- 중국의 리오프닝, 주요국의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지만,
  - 오늘 발표된 1월 수출입 동향은 아직 우리 경제가 극심한 한파의 한 가운데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-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4개월 연속 지속되었고, 무엇보다 1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26.9억불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.

- 1월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\*한 가운데,

\* 1월은 12개월 중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좋지 않은 달

↳ 평균 무역수지('01~'22년, 억불): (1월) 7.3 vs (2~12월) 30.2

-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\*,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활동 차질 등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켰습니다.

\* D램 고정가격(불): ('22.5~6월) 3.35 (7월) 2.88 (8~9월) 2.85 (10~12월) 2.21 ('23.1월) 1.81

- 향후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,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

- 하지만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수출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원팀이 되어 수출 및 수주 드라이브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
- ① 우선 방산·원전·인프라의 수출금융 지원목표를 작년 9.3조원에서 올해 20조원+@로 2배 이상 늘려,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.

\* 수출금융 목표(조원, '22→'23년, 수은기준): (방산·원전) 0→8.5, (인프라) 9.3→11.5

- 방산·원전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 신속 무역보증 제도를 도입하고, 방산 거점 무역관도 작년 20개에서 올해 31개\*로 50% 이상 확대하겠습니다.

\* (신설) 바르샤바, 프라하, 쿠알라룸푸르, 멕시코시티, 시드니 등

- ② 아울러,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- 반도체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'생명수'이자 대한민국의 경상흑자\*를 유지시키는 1등 공신입니다.

\* 무역수지(억불, 반도체 포함→제외): ('21) 293→△373 ('22) △475→△1,019

-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담보하는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③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. 이의 일환으로, 금번 UAE 순방 성과가 新중동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- 300억불의 UAE 국부펀드 유치, 61억불+@의 MOU 체결이 후속투자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채널 가동, 국내제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
- 또한, 올해 신설되는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절반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이 단일시장에만 의존하는 시장 편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이러한 맥락에서 재경관 역할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.

- 해외공관이 우리 수출·수주의 거점기지로 변모하는 것에 발맞춰 글로벌 영업사원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.

- 해외진출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, 현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원스톱 수출·수주 지원단과 협업하여 내 일처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.

- 또한, 우리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정책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, 세계 일류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국내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.

□ 재경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와 차관들이 수시로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책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